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인지, 대처 및 디스트레스

Stress Perception, Coping and Distress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金 慶 信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Kyeong-Shin, Kim

본 연구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족의 정신, 신체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중시하고, 부모와 수험생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를 인지, 대처, 디스트레스의 각 측면으로 측정하고 관련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가족의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그 부모 3인을 한쌍으로 360가족, 108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모, 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 부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부의 스트레스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문제해결적 대처방식에 있어 부, 모, 자녀의 순으로 대처능력이 높게 나타나, 자녀는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면서도 적절한 대처방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 자녀의 스트레스 상관도는 자녀의 경우 스트레스 인지와 디스트레스간의 상관성이 비교적 높고, 부모의 경우는 스트레스 대처와 디스트레스간의 상관성이 높다. 또한 부부간 스트레스는 상관성이 높지만 부모 자녀간에는 상관성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3) 자녀의 지원대학 수준, 모의 학력이나 가족의 소득, 부의 직업 수준 등이 낮은 경우 부모나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가족응집성,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욕,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와의 친밀성, 부모 자녀 갈등 등은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모두 자신의 지각에 따라 반응한다.

I. 서 론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어, 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획득해 나가야하는 중

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의 부담과 그로 인한 가족의 과중한 기대에 시달리고 있다. 이길홍의 연구(1983)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교 문제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률은 과거 10년간 두배로 상승하였고, 김광일 등(1983)은 한국의 고등학생의 31%가 심각한

정신질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 정도가 적응적일 때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함으로써 수험생으로 하여금 처해진 상황과 목적에 대한 빠른 인식과 수행능력을 갖게 하지만, 그 정도에 적응적이지 못할 때는 지나친 압박감으로 인해 심리적 손상을 가져와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신, 신체적 질병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더구나 수험생은 그 연령특성상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처해 있어 수험에 의한 스트레스 이외에 발달과정상 특성이 야기시키는 정신, 신체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중, 삼중의 심리적 갈등과 압박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강화되어 온 가족주의의 영향과 고등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망으로 인하여 수험생의 심리적 긴장과 갈등이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호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입시의 압박감 때문에 나타나는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는 자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과중한 기대와 연관되어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는 물론 부모자녀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이동원, 1992). 따라서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각 내용도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총체적인 가족적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박종원, 1982; 백기청, 1991; 백기청·홍강의, 1987; Croog, 1970; Jenkins, 1979; Liem과 Liem, 1978; Pearlin, 1975; Rabkin, 1982)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 가족관계, 친구나 직업을 통한 사회적 지원 등의 영향력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도 이러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확보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정서적 안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험생 자녀와 그 부모의 스트레스의 제 상황과 그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의 발생과 극복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가족에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여, 수험생 가족의

정신 건강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 아래,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둔다.

- 1) 부모와 수험생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 그리고 디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떠한가?
- 2)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 인지, 대처, 디스트레스는 각각 어떠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가?
-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인지, 대처, 디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또한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이 각자의 스트레스 인지, 대처 및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중요변인 및 스트레스인지, 대처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관련 개념

Selye(1956)는 스트레스를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해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특정적인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만약 이러한 변화가 야기되어 이 변화가 신체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신체는 스스로를 보완하기 위해 신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재정비함으로써 대내적인 반응태세를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환경적 변화와 부정적 반응사이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스트레스 사건이 직접 부정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여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개인의 인지과정이나 대처방식을 중시하는 개념체계가 발전하게 되었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스의 개념을 과정상으로 분류하면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매개체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인지 및 대처행동으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distress)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Pearlin & Schooler, 1978).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생산하는 강하

면서도 불유쾌한 정서적 힘 또는 압력으로서, 적응 과정을 위협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인간의 적응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어떤 특정한 반응 또는 반응군을 스트레스로 보거나 적어도 스트레스 개념의 변수로 보는 관점으로, Selye(1956)는 긍정적 스트레스를 "Eustress", 부정적 스트레스를 "Distress"라고 각각 명명하였다.

Lazarus와 Launier(1978)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대처 노력을 하게 되어,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거나 (문제 집중적 대처), 정서적 고통을 조정하여 삶과 환경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정서 집중적 대처)고 하였다. Folkman과 Lazarus(1980)는 이론에 근거하여 대처방식척도(Ways of Coping Checklist)를 개발하여 100명의 중년층 남, 녀를 대상으로 이들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보고한 1,332개의 에피소드 중 98%에서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집중적 대처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밖에도 대처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은 대처유형을 두가지 혹은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Pearlin과 Schooler(1978)는 대처를 문제지향적, 인지적, 정서완충적인 세 차원으로, Billings와 Moos(1984)는 노력의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 개방적 대처의 두차원으로, Parkes(1986)는 직접적 대처, 억압적 대처와 일반적 대처로 나누었다. 특히 Folkman과 Lazarus(1985)는 시험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대처방식을 연구하면서 스트레스 대처가 하나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과정변인임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이들 이론을 기반으로 대처에 관한 개념이 발전되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대부분 위에서 제시된 세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김정희(1987)는 개인의 적응상태와 분리하여 스트레스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계론적 측면, 즉 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평가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호택(1991)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자극의 지각으로부터 대처가 시작된다고 보고 개인의 자원과 지원세력 등이 대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백기청(1991)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강도가 높을 때 질병이 초래되므로 스트레스원인 생활사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개인의 성격이나 주변상황 등 중재변인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역시 이러한 스트레스 인지평가와 대처과정을 거쳐 개별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내리는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및 대책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다룬 Folkman등(1986a)의 인지평가 항목을 기초로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의 두가지 분류로 크게 나누어져 가장 일반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대처방식모델을 사용하였다. 다만 McCrae(1984)가 사용한 척도의 경우 기존의 대처방식 척도를 비교적 안정적인 검증을 거쳐 범주화하여 학업이라는 한정된 스트레스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류라 볼 수 있으므로 특히 이에 기초하여 스트레스 대처과정을 분석하였다.

2. 청소년과 부모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김광일 등(1983)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정신이 건강한 학생의 빈도는 46.31%에 불과하고, 정신질환의 빈도가 31.05%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나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경계선 상태가 22.63%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89%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가지 이상의 적응상 곤란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장애문제와 관련된 공부문제가 가장 많고 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입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발달과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한동세(1972)가 고3명과 중3명에 관해 사례연구한 이래, 박종원(1982)이 청소년 정신장애자의 생활사건 중 학업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하였고, 백기청과 홍강의(1987)의 연구에서도 대학진학과 시험이 청년기 남녀의 가장 큰 스트레스원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만홍 등(1990)도 대학입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지나친 긴장과 불안을 유발시켜 정신장애(김광수 등, 1991) 혹은 신체적 기능장애나 질병발생(백인호, 1991)을 초래하는데, 특히 강병조(1991)는 시험이나 학업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김양희와 전세경(1989)은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성적이 따라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동원(1992)은 수험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67.8%, 어머니의 78.7%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식되는 정도는 부모 각각 47.2%, 66.4%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렇듯 여러 연구결과들이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정신 및 신체적 질환의 발병이나 경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에 가족원들 역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 분석한 연구가 많아,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 행동을 분석하여 스트레스 완화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이나 친구, 친지,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Croog(1970), Pearlin(1975), Liem과 Liem(1978)은 특히 이 중에서 가족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는 가족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Rabkin(1982)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내재 요인 중에서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고, Jenkins(1979) 역시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지적하였다.

가족관계 중에서 가족원간의 갈등이나 친밀도 등은 스트레스 증감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박종원(1982)은 청소년 정신장애 중 많은 비율이 부모나 가족관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Croog(1970) 역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중시하였다. 또 Larson등(1990), Sandler와 Block(1979)은 가

족간의 친밀도나 온정도가 스트레스 적응이나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적응력이나 결혼만족도 등이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rowning, 1960; Friedrich, 1979; Husaini 등, 1982)도 있으며 Cohen등(1986)은 가족 이외에도 친구관계가 사회적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고, 강성희(1991)의 연구에서도 또래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여러연구들(김경아·이정우, 1990; 노재숙, 1990; 배종렬, 1985; 안귀여루, 1988; Cohen과 Hoberman, 1983; Jenkins, 1979; Hill, 1971)에서 자기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 역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의 지지 이외에도 가족구조 역시 스트레스의 유발이나 극복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으며(Lasswell과 Lasswell, 1991) 이외에 경제력, 계층, 주거지, 성별, 연령, 학력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 역시 분석되어 왔다(이도영, 1990; Hamilton & Uarburton, 1979; Leifson, 1979).

그러나 이러한 여러 변인들의 영향력이 학업스트레스에 관련되어 분석되어진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되 이를 총체적으로 입시스트레스에 관련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와 더불어 가족의 지지 및 가족관계, 혹은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변인을 선정하여 이러한 제변인이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처자원으로서의 가족자원을 중시하여 변인을 구성하되 주로 학업이나 부모자녀관계에 관련하여 척도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영역별 척도는 총 13가지로서, 10가지의 개인 및 가족관련변인(자녀의 학업성취욕, 자아정체감과 친구선호도, 부모의 지배성과 결혼만족도, 부모자녀간 친밀도와 갈등, 가족응집성)과 스트레스인지, 대처, 디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된다. 모든 척도는 일

차적으로 관련문헌에서 적절한 항목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후, 관련전공자들의 타당도 검증을 거치고 예비조사 결과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표 1과 같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 인지 항목은 Folkman등(1986a)의 척도를 기초로 대학입시 준비에 관련한 스트레스의 자기 평가 영역을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디스트레스 척도 역시 Beck(1967), Radloff(1977), Smucker등(1986)의 척도를 참고로, 학업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신, 신체적 증상에 기준하여 자녀 20개, 부모 22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척도는 Billings와 Moos(1984), Coyne등(1981), Folkman과 Lazarus(1980), Folkman등(1986b), Stone과 Neale(1984) 등의 척도를 참고하였는데 특히 McCrae(1984)가 제시한 28개 소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에 관련하여 서술되었으며 4개 영역은 2문항씩으로 구성하여 총 32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문제해결적 대처방식은 이성적 행동, 도움요청, 인내, 긍정적 사고, 단계적 해결, 대체, 유연성, 재충전, 자아적응, 적극적 소거, 대안적 선회 2문항 등 총 12개 문항이며, 정서적 대처방식은 적대반응, 무반응적 회피, 운명주의 2문항, 정서표출 2문항, 환상적 회피, 지적 부인, 자기책망, 사회적 비교, 진정요법 2문항, 투사, 위축, 기원, 회화, 지연, 우유부단, 방어, 신앙 등 총 20개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Likert type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영역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점수 1점에서 5점 범위로 환산하여 분석되었다.

가족응집성 척도는 Olson등(1985)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친구선호도는 Tisak과 Tisak(1990), Sebald

(1986), Reid등(1989)의 척도를 참고하였고, 자아정체감은 Rosenberg(1965), 부모자녀간 친밀도는 Lowman(1980), 부모자녀간 갈등은 Straus(1979), 결혼만족도는 Spanier(1976), Snyder(1981), Roach등(1981)의 척도를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수험생의 범주는 다양하나 가장 대표적인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 부모와 더불어 3인을 한쌍으로 표집하였고 수험생 자녀, 부, 모에게 해당하는 각각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 대전, 광주 지역을 임의 선정하였고, 서울의 경우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강북과 강남의 남고, 여고 각 1개교씩 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대전, 광주의 경우도 각각 남고, 여고 1개교씩 4개교를 선정하여 총 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조사 인원으로는 450가족, 1,350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불충실한 자료를 제외한 360가족, 1,080명의 자료를 최종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 조사과정 및 분석 방법

예비조사는 1993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50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부 수정한 설문지로 1993년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표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 통계 방법은 빈도, 백분률,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이 행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PC용 SA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표 1. 척도의 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문항수	Cronbach's α
가족응집성	5	.88	결혼만족도	5	.91
부 친밀성	8	.91	부모자녀 갈등	8	.78
모 친밀성	8	.90	스트레스인지	9	.70
학업성취욕	4	.68	스트레스대처	32	.77
자아정체감	4	.67	디스트레스	20(자녀)	.90
친구선호도	6	.84		22(부모)	.91

신뢰도는 부모자녀 평균치임

IV. 연구결과

1.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표 3에서와 같이 부모와 수험생 자녀가 인지하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정도는 자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모, 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평균 3.569점, 모 평균 3.296점, 부 평균 3.166점 등으로 본 연구 척도의 중간점수를 상회하고 있어

부모자녀 모두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부의 점수와 모의 점수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수험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부모 자녀 공히 '점수로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싫다'에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이고 있고, 자녀는 '학업으로 인해 다른 일을 못해 불만이다', '친구끼리의 경쟁이 서글프다', '부모님의 체면 손상이 걱정된다' 등의 항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60:가족수)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거주지	서울	172	47.8	부연령	-40대	201	55.9
	대전	95	26.4		50대	157	43.6
	광주	93	25.8		60대-	2	0.6
자녀성별	남	203	56.4	부학력	국졸이하	17	4.7
	녀	157	43.6		중졸	46	12.8
모연령	30대	12	3.3		고졸	141	39.1
	40대	302	84.0		초급대이상	156	43.3
	50대	46	12.7	부직업 (N=300)	전문직, 관리직	36	12.0
모학력	국졸이하	36	10.1		기술직, 사무직	125	41.7
	중졸	102	28.3		자영업	96	32.0
	고졸	154	42.9		서비스, 생산직	34	11.3
	초급대이상	68	18.7		무직	9	3.0
모취업	유	91	25.3	가족소득 (N=348)	50만원 이하	16	4.6
	무	269	74.7		51-100만원	101	28.9
가족형태 (N=348)	핵가족	262	72.8		101-150만원	106	30.4
	확대가족	98	27.2		151-200만원	61	17.5
					201-300만원	37	10.6
					301-500만원	15	4.3
				501만원 이상	12	3.4	

표 3. 스트레스인지의 일반적 경향

	자녀		모		부	
	M	SD	M	SD	M	SD
성적 부진	3.206	1.024	3.278	0.968	3.192	0.972
부모자녀간 기대차	3.061	1.032	3.189	1.011	3.147	1.044
학습시간 과중	2.872	1.095	3.622	1.082	3.556	1.062
점수에 의한 인간평가	4.136	0.917	3.942	0.902	3.861	0.949
성적공개	3.689	1.046	3.564	1.048	3.272	1.094
부모체면손상	3.706	1.043	2.700	1.129	2.619	1.051
친구끼리의 경쟁	3.769	1.031	3.664	1.048	3.450	1.022
경제적 부담	3.656	1.020	3.061	1.082	2.947	1.032
학업이외 활동장애	4.025	1.024	2.667	0.993	2.453	0.952
전체 평균	3.569	0.592	3.296	0.531	3.166	0.457

목에서 스트레스가 두드러지며, 부모는 '공부에 지쳐 안타깝다'와 '자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걱정된다'의 상반된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와 비정상적인 교육열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체평균 점수는 표 4에서와 같이 자녀 평균 2.676, 모 2.613, 부 2.593으로 나타나 중간점수 3.0에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정서적 대처보다는 문제해결적 대처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

표 4.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일반적 경향

		자녀		모		부	
		M	SD	M	SD	M	SD
문 제 해 결 적 대 처	이성적 행동	2.958	0.927	3.056	0.997	3.122	0.957
	도움 요청	2.697	0.992	3.147	0.943	2.950	0.919
	인내	3.061	0.913	3.356	0.977	3.244	0.965
	긍정적 사고	2.408	0.970	2.789	0.934	2.803	0.965
	단계적 해결	3.406	1.106	3.369	0.967	3.319	0.985
	대체	2.789	1.022	2.625	0.918	2.703	0.975
	유연성	2.864	1.013	3.086	0.905	3.308	0.927
	재충전	3.169	1.003	3.267	0.945	3.364	0.989
	자아적용	3.311	0.872	3.361	0.934	3.383	0.960
	적극적 소거	3.122	1.078	2.475	0.981	2.569	1.007
	대안적 선회 I	2.994	1.032	2.986	0.905	2.833	0.921
	대안적 선회 II	3.064	0.981	2.864	0.982	2.786	0.905
	평 균	2.987	0.568	3.032	0.506	3.033	0.518
정 서 적 대 처	적대반응	2.886	1.083	2.792	1.014	2.764	1.018
	무반응적 회피	2.847	1.032	1.983	0.792	1.919	0.894
	운명주의 I	1.969	0.839	2.411	0.911	2.417	0.978
	운명주의 II	1.794	0.946	1.644	0.755	1.644	0.755
	정서표출 I	2.353	1.094	2.428	1.010	2.272	1.041
	정서표출 II	2.439	1.036	2.056	0.857	1.825	0.770
	환상적 회피	2.828	1.021	2.661	0.935	2.569	0.937
	지적 부인	2.025	0.886	1.931	0.782	1.928	0.796
	자기책망	3.053	1.106	2.083	0.909	1.969	0.837
	사회적 비교	2.514	1.002	2.761	0.933	2.719	0.964
	진정요법 I	2.494	1.058	2.081	0.836	2.056	0.869
	진정요법 II	1.528	0.890	1.550	0.678	2.061	0.982
	투사	2.436	0.940	3.061	0.956	3.147	0.981
	위축	3.211	0.984	2.875	0.884	2.644	0.894
	기원	2.422	1.156	2.125	0.947	1.864	0.830
	회화	2.456	1.063	2.544	0.933	2.675	0.978
	지연	2.639	1.034	2.272	0.914	2.186	0.948
우유부단	2.919	1.139	2.211	0.814	2.378	0.908	
방어	2.969	1.002	3.347	1.014	3.381	0.975	
신앙	2.008	1.081	2.419	1.058	2.167	0.979	
	평 균	2.489	0.476	2.362	0.466	2.329	0.506
	전 체 평 균	2.676	0.401	2.613	0.407	2.593	0.444

표 5. 디스트레스수준의 일반적 경향 (상위 5개 항목)

	자녀		모		부	
	M	SD	M	SD	M	SD
잡념이 많이 생긴다	4.106	0.926	2.733	1.158		
피곤하다	4.006	0.962	3.100	1.171	2.603	1.024
성적하락, 시험탈락이 두렵고 조바심이 난다	3.869	1.025	3.156	1.167	2.600	1.183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정하다			2.939	1.043	2.531	1.001
학습능률이 떨어진다	3.206	1.049				
무엇인가 짓누르는 것 같다	3.175	1.020				
울화가 치민다			2.681	1.147	2.417	1.139
자녀걱정으로 음주, 흡연이 많아진다					2.269	1.174
전 체 평 균	3.672	0.716	2.922	0.865	2.484	0.863

표 6. 스트레스 영역별 상관도 (Pearson's r)

		자녀			모			부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 대처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 대처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 대처	디스트레스
		자녀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대처	.280***								
	디스트레스	.498***	.312***							
모	스트레스인지	.231***	.093	.104*						
	스트레스대처	.184***	.117*	.064	.295***					
	디스트레스	.178***	.006	.193***	.387***	.502***				
부	스트레스인지	.220***	.072	.084	.545***	.188***	.264***			
	스트레스대처	.216***	.207***	.088	.201***	.511***	.306***	.315***		
	디스트레스	.175***	.133**	.128**	.221***	.391***	.513***	.383***	.528***	

* p<.05 ** p<.01, *** p<.001

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경우 정서적 대처보다 문제 해결적 대처방식이 많이 나타나 학습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이성적인 성향을 알 수 있으며, 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약간 더 두드러진다. 이것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단계적 해결'이나 '자아적응'은 부모자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방식이며 이밖에 자녀의 경우 '위축', 모는 '인내', 부는 '재충전', '방어'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보다 자녀가 다소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디스트레스 수준을 보면 상위 5개 항목에 있어 자녀의 디스트레스가 평균 3.6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 평균 2.922점, 부 평균 2.484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는 '잡념이 많이 생긴다'의 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부모는 '자녀의 성적

하락이나 시험탈락에 대한 불안', '피곤' 등의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2.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 각 영역간 상관

표 6은 부모와 수험생자녀가 스트레스의 각 영역별로 어떠한 상관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개인별 스트레스 영역간의 상관도를 보면, 자녀의 경우는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r=.280$), 스트레스 대처와 디스트레스($r=.312$)간의 상관보다는 스트레스 인지와 디스트레스($r=.498$)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모의 경우는 스트레스 인지와 디스트레스($r=.387$)보다는 스트레스 대처와 디스트레스($r=.502$)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 부의 경우 역시 스트레스 대처와 디스트레스($r=.$

528)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정도가 클수록 적극적 대처도 많이 하고 우울과 같은 디스트레스 수준도 증가한다고 한 김정희(1987)의 연구 결과와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지만, 특히 자녀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 인지나 디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와 연결되는 정도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각 영역별 가족간의 상관도를 보면, 모든 영역에 걸쳐 부부간의 상관도는 높은 반면 자녀와 부모자녀간의 상관도는 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모자녀간의 상관도를 분석해보면 모자녀간이 부자녀간보다 상호 스트레스 인지나 디스트레스 상관관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자녀간에는 어느 한쪽이든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되었을 때 더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3. 관련 변인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12개로서, 각각의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세 영역별 차이는 표 7과 같다. 가장 고르게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자녀가 응답한 지원대학으로서, 본 연구에서 분류한 범주에 따르면 입학점수가 높게 요구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오히려 입학 점수가 낮은 대학의 지원자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 이러한 차이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모의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부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모의 학력 변인은 모 자신 보다는 부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확대가족 모의 대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확대가족의 부는 디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가족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녀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권이 부인에게 있을 때는 남편의 디스트레스가 높고 교육권이 부에게 있을 때는 부의 대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스트레스가 높으며, 부의 학력 역시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데, 중고졸의 학력을 가진 부의 자녀가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나므로, 학력에 대한 부의 대리육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의 직업 역시 학력과 동일한 경향으로 자녀의 디스트레스 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며 부자신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부의 스트레스, 특히 디스트레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구성원 중 부가 이러한 변인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 및 가족관련변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각자가 지각한

표 7.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스트레스 차이(각 척도별 평균값 기준 - F value)

변 인	자녀			모			부		
	인 지	대 처	디스트레스	인 지	대 처	디스트레스	인 지	대 처	디스트레스
거주지	1.70	0.21	0.97		1.32	3.86*	0.63	0.58	6.96***
자녀지원대학	2.78*	0.97	3.21*	4.60**	6.12***	3.68**	9.72***	8.05***	11.20***
모학력	1.36	2.61*	0.23	1.40	1.77	0.93	2.81*	6.86***	5.26***
가족유형	0.81	0.85	0.16	0.23	3.95*	1.92	2.45	2.59	4.82**
소득	2.62**	1.33	1.83	1.16	1.23	1.08	2.90**	1.84	0.79
경제권	0.47	0.14	0.30	1.25	0.06	1.30	1.31	2.25	4.09**
교육권	0.75	1.75	0.05	1.92	2.92*	0.31	0.69	6.61***	1.83
모지망대학	1.68	1.32	2.11	2.03	2.06	3.88**	3.03**	2.83*	4.44***
부연령	2.54*	0.81	0.76	0.74	0.99	0.75	2.12	0.68	0.48
부학력	3.14*	1.98	1.77	1.73	0.78	1.46	1.92	2.50*	3.47**
부직업	1.24	0.44	2.63*	0.74	1.95	1.40	3.90**	2.98**	3.99**
부지망대학	1.49	0.51	1.84	3.52**	2.21	3.08*	6.63***	4.63**	4.45**

* p<.05 ** p<.01 *** p<.001

내용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1.882에서 2.076 사이로 나타나, 잔차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상관계수 역시 상호독립적임을 보여주어 변인간에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응집성은 자녀와 부의 디스트레스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스트레스의 극복을 위해 가족의 화합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자녀가 지각한 부의 지배성은 모의 대처 능력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의 지배성은 가족원의 스트레스인지나 디

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모의 지배성의 감소가 가족원의 스트레스 감소에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친구선호도 역시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의 자아정체감이나 학업성취욕은 부모자녀 모두의 스트레스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원 개인의 자원 역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와의 친밀성은 자녀의 디스트레스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와의 친밀성은 자녀의 대처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부모와의 친밀성이 자녀의 스트레스 극복에 중요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고, 또한

표 8. 개인 및 가족관련변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Beta)

변 인	자 녀			모			부			
	인 지	대 처	디스트레스	인 지	대 처	디스트레스	인 지	대 처	디스트레스	
자 녀 지 각	가족 응집성	.10	.01	-.11*	-.07	-.04	-.06	.02	.10	-.13*
	부의 지배성	-.06	-.06	.03	-.08	-.11*	-.04	.03	-.10	.02
	모의 지배성	.10*	-.01	.08	.11*	-.10	.05	.02	-.09	-.08
	부와의 친밀성	.05	.07	-.12*	-.01	.05	-.10	-.05	-.01	.04
	모와의 친밀성	.11	.14*	-.01	.18**	.01	.03	.09	-.04	-.02
	친구선호도	.09*	.16**	.07	-.06	-.04	-.08	-.05	-.02	-.06
	자아정체감	-.06	.11*	-.22***	-.01	.07	.03	.03	.06	.10
	학업성취욕	-.07	-.07	-.11*	-.10*	-.18***	-.17***	-.13*	-.13*	-.15**
	부모자녀갈등	.40***	.22***	.09	.10	.16**	.19**	.12*	.30**	.28***
	R ²	.17	.08	.21	.05	.07	.13	.05	.09	.13
F	8.18***	3.53***	10.38***	2.00*	3.09**	5.93***	1.95*	4.02***	5.86***	
모 지 각	가족 응집성	.13*	.09	-.03	-.23***	.05	-.01	.09	.14*	-.12*
	모의 지배성	.01	-.04	.02	.22***	.05	.17***	.12*	-.03	.02
	자녀 학업성취욕	-.11*	-.07	-.19***	-.08	-.16**	-.19***	-.19***	-.20***	-.17***
	결혼만족도	-.12*	-.03	-.08	-.20***	-.03	-.22***	-.11	-.11	.01
	부모자녀갈등	.07	.06	.01	.15**	.16**	.23***	.07	.10	.23***
	R ²	.03	.01	.06	.12	.07	.27	.08	.06	.16
	F	2.24*	.87	4.29***	9.90***	5.58***	26.24***	5.79***	4.68***	13.78***
부 지 각	가족응집성	.08	-.01	.01	.05	.02	-.01	.06	.13*	-.18**
	부의 지배성	-.01	.01	.03	.01	-.02	-.02	.06	-.01	-.02
	자녀 학업성취욕	-.12*	-.04	-.13*	-.07	-.14**	-.12*	-.16**	-.16**	-.08
	결혼만족도	.01	.07	-.06	-.03	-.01	-.12*	-.05	-.12*	-.06
	부모자녀갈등	.08	.08	.04	.17**	.20***	.26***	.25***	.24***	.37***
	R ²	.02	.01	.03	.04	.08	.15	.13	.12	.30
F	1.61	0.86	2.50*	3.06**	6.05***	12.40***	10.32***	9.17***	30.49***	

* p<.05 ** p<.01 *** p<.001

부모자녀 갈등은 가장 스트레스에 깊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개별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는 가정내에 내재한 가족간 갈등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원만한 부부관계 역시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자신의 지각에 따른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관련변인 및 스트레스인지, 대처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표 9와 같다. 자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인지가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으나, 부모 특히 모보다 부에 있어서는 대처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자녀갈등의 지각 정도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자녀에서 모,부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부와의 친밀성이 자녀의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특히 부자녀관계에 관한 탐색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타변인 중에서는 자녀에게 있어 자아정체감, 모에게 있어서는 결혼만족도, 부에게 있어서 가족응집성 등이 비교적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와 수험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인지, 대처, 디스트레스의 세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것으로, 첫째, 학업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자녀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모, 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 부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부의 스트레스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는 특히 문제해결적 대처에 있어 부, 모, 자녀의 순으로 대처능력이 높게 나타나, 자녀는 스트레스 인지나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에도 다소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 각 영역의 상호 관련 정도에서도 자녀는 스트레스 인지와 디스트레스간의 상관성이 높고 부모는 대처와 디스트레스간의 상관성이 높아, 자녀의

표 9. 주요 관련변인 및 스트레스 인지, 대처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Beta)

변 인		디 스트 레 스		
자녀	스트레스인지	.50***	.47***	.42***
	가족응집성		-.19***	-.19***
	부와의 친밀성		-.15**	-.16***
	자아정체감		-.18***	-.22***
지각	학업성취욕		-.09*	-.08
	부모자녀갈등		.07	.09*
각	스트레스대처			.23***
	R ²	.25	.40	.44
	F	118.08***	37.46***	39.17***
부모	스트레스인지	.39***	.28***	.19***
	모의 지배성		.11**	.11**
	자녀학업성취욕		-.18***	-.13**
	결혼만족도		-.20***	-.21***
지각	부모자녀갈등		.21***	.17***
	스트레스대처			.36***
각	R ²	.15	.34	.45
	F	63.11***	36.54***	48.90***
부	스트레스인지	.38***	.25***	.15***
	가족응집성		-.23***	-.24***
	부모자녀갈등		.32***	.23***
	스트레스대처			.39***
각	R ²	.15	.35	.48
	F	61.59***	63.42***	81.90***

* p<.05 ** p<.01 *** p<.001

경우 스트레스 인지나 디스트레스가 대처와 연결되는 정도가 미약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가족간의 상관도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 걸쳐 부부간의 상관도는 높은 반면 부모자녀간의 상관도는 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모자녀간은 스트레스 인지나 디스트레스에서, 부자녀간은 스트레스 대처에서 더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가족에 관련된 변인들은 다양하게 스트레스의 각 영역에 차이를 나타내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녀의 지원 대학 수준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저학력이 부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소득이 낮은 경우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고졸의 학력을 가진 부, 직업적 지위가 낮은 부의 경우, 부, 자녀 모두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응집성, 자아정체감, 학업 성취욕,

결혼만족도 등은 스트레스 수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 특히 부와의 친밀성이 자녀의 스트레스 감소와 관련된다. 또한 부모자녀간 갈등은 가장 스트레스에 깊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자신의 지각에 따른 변인의 설명력이 높아, 가족원 각자가 지각 중심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모에 비하여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이러한 수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녀 자신이 상담시설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거나 집단활동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탐색을 통해 유연성 및 인내심을 함양하는 등의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일차적인 협조자로서, 지나친 교육열을 자제함으로써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자녀의 대처 능력의 향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간의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이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부모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수험생 자녀를 둔 부의 스트레스는 그 수준이 모와 그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부와의 친밀성과 같은 부관련 변인이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며, 부가 모나 자녀에 비하여 다소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역할 모델로서 부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와의 대화 기술이나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등을 학습함으로써 자녀와의 친밀한 대화시간을 증가시키고 부자녀간 공동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련 변인은 수험생 가족의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원 각자는 자신의 지각 내용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학입시와 같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원도 부모자녀관계의 내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별적 대처행위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대학입시와 같은 강력한 환경적 자극을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은 바로 가족 안

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 시기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고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며 실제로 부모와의 접촉시간이 극소화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게 형성된 부모자녀관계야말로 수험에 따른 가족원의 스트레스를 가장 강력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성희(1991). 아동의 스트레스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의 역할. 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강병조(1991). 스트레스와 정신신경면역학. 정신건강연구 10, 65-79.
- 3) 김경아·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변인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7.
- 4) 김광수·유태열·김중은(1991). 스트레스의 정신신경내분비반응: 우울장애와의 관련성. 정신건강연구 10, 81-95.
- 5)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신건강연구 1, 1-39.
- 6)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화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7) 김양희·전세경(1989).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25-42.
- 8) 노계숙(1990).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박종원(1982). 청소년 정신장애 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일연구. 신경정신의학 21, 587-594.
- 10) 배종렬(1985).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백기청(1991). 스트레스와 생활사건: 방법론 및 정신질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연구 10, 10-35.
- 12) 백기청·홍강의(1987). 스트레스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6, 75-111.
- 13) 백인호(1991). Stress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 정신건강연구 10, 51-63.
- 14)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에 대한

- 사회적 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15) 원호택(1991).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정신건강연구* 10, 37-50.
- 16) 이길홍(1983). 현대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정신 건강. *새교육* 35(4), 73-79.
- 17) 이도영(1990).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수준과 그 대화반응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18) 이동원(1992). 대학입시와 가족. *한국사회학회편. 대학입시와 가족* 1-13.
- 19) 이만홍 · 이영문 · 김찬형(1990). 대학입시 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9, 896-909.
- 20) 한동세(1972). 고 3병과 중 3병. *신경정신의학* 11, 235-242.
- 21) Beck, A.T.(1967). *Depression :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22) Billings, A.G. & Moos, R.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 23) Browing, C.J.(1960). Differential impact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ale adolescents. *Social Problems* 8, 37-44.
- 24)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25) Cohen, S., Sherrod, D.R. & Clark, M.S.(1986). Social skills and the stress-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63-973.
- 26) Coyne, J.C., Aldwin, C. & Lazarus, R.S.(1981). Depression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 of Abnormal Psychology* 90(5), 439-447.
- 27) Croog, S.(1970). The family as a source of stress. In S. Levine & N.A.Scotch(eds.), *Social Stress*. Chicago : Aldine.
- 28) Folkman, S. &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29) Folkman, S. & Lazarus, R.S.(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process :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college examination. *JPSP* 47, 153-174.
- 30) Folkman, S., Lazarus, R.S., Gruen, R.J. & Delongis, A.(1986a).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PSP* 50(3), 571-579.
- 31)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J.(1986b).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outcomes. *JPSP* 50(5), 992-1003.
- 32) Friedrich, W.N.(1979). Predictors of the coping behavior of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J. of Child Psychiatry* 13, 211-218.
- 33) Hamilton, V. & Uarburton, D.M.(1989). *Human stress and cognition*. New York : John Wiley Co.
- 34) Hill, R.(1971). *Families under stress*. 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 35) Husaini, B.A., Neff, J.A., Newbrough, J.R. & Moore, M.C.(1988). The stress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 confidence among the rural married. *J. of Community Psychology* 10, 409-426.
- 36) Jenkins, C.D.(1979). Psychosocial modifiers of response to stress. In J.E. Barrett(ed.), *Stress and mental disorder*. New York : Raven Press.
- 37) Larson, R.W., Raffaelli, M., Richards, M.H., Ham, M. & Jewell, L.,(1990). Ecology of depression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A profile of daily states and activities. *J. of Abnormal Psychology* 99, 92-102.
- 38) Lasswell, M. & Lasswell, T.(1991). *Marriage & the Family*. Wadsworth, Inc.
- 39)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 40) Lazarus, R.S. & Launier, R.(1978). Stress 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A. Pervin & M.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New York : Plenum.
- 41) Leifson, J.(1979). Parenthood as crisis. *JMF* 17, 352-355.
- 42) Liem, R., & Liem, J.(1978). Social loss and mental illness reconsidered : The role of economic stress and social support.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39-156.
- 43) Lowman, J.C.(1980). Measurement of family affective structure. *J. of Personality Assessment* 44, 130-141.
- 44) McCrae, R.R.(1984).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responses : Loss, threat, and challenge. *JPSP* 46(4), 919-928.
- 45) Olson, D., Portner, J. & Lavee, Y.(1985). *FACES III*.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Inc.

- 46) Parkes, K.R.(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nmental factor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PSP* 51,1277-1292.
- 47) Pearlin, L.I.(1975). Sex roles and depression, In N. Datan & L.H. Ginsberg(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 Normative life crises*. New York : Academic Press.
- 48) Pearlin, L.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49) Rabkin, J.G.(1982). Stress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 The Free Press.
- 50) Radloff, L.(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social Measurement* 1, 385-401.
- 51) Reid, M.S., Landesman, S., Treder, R. & Jaccard, J. (1989). My family and friends : Six- to twelve-year-old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60, 896-910.
- 52) Roach, A.J., Frazier, L.P. & Bowden, S.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JMF* 41, 537-545.
- 53)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esteem*. Princeton, NJ. : Princeton Univ. Press.
- 54) Sandler, I.N. & Block, M.(1979). Life stress and maladaptation of children. *American J. of Community Psychology* 7, 425-440.
- 55) Sebald, H.(1986). Adolescents' shifting orientation toward parents and peers. *JMF* 48, 5.
- 56) Selye, H.(1956).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 : J. B. Lippicott.
- 57) Smucker, M.R., Craighead, W.E., Craighead, L.W. & Green, B.J.(1986). Normative and reliability data for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1), 25-39.
- 58) Snyder, D.K.(1981).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anual*. L.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59) Spanier, G.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JMF* 38(1), 15-28.
- 60) Stone, A.A. & Neale, J.M.(1984). New measure of daily coping : Develop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PSP* 46(4), 892-906.
- 61)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MF* 41, 75-85.
- 62) Tisak, M.S. & Tisak, J.(1990). Children's conception of parental authority, friendship, and sibling rel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36, 347-367.